

## 5장 자율적인 예술작품이라는 관념

신비평-감상주의적 비평

‘자세히 읽기’ 즉 텍스트를 가져와 그것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-텍스트를 가르치는 것이 단지 그것을 암송하고, 그것에 대한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고, 달리 할 말을 찾기 위해 쓸데 없이 주의를 두리번거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믿음-은 무엇보다도 교수법의 혁명이었습니다. (110)

자세히 읽기 (close reading)

--> 형식에 대한 관심

플라톤 국가 시인의 모방 \*-\*-\* 세 단계 떨어짐 -> 이상적인 형식(이데아)

아리스토텔레스: 시인의 모방 (X) 현실의 재구축 (O)

시인이 하는 일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재정렬하는 것, 더 나아가 규칙화 하는 것

--> 형식주의 기원 111-112

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있어야 할 방식으로 재연해 현실을 변형

칸트: 판단력

판단력의 태도:

①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대상을 그자체로 (그 자체를 위해) 봄

② 욕구에 바탕을 둔 오성의 기능이나 도덕에 바탕을 둔 이성의 기능이 아니라, 판단력에 따라 그것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.

③ 대상은 자신의 내적인 목적을 지니며, 다른 것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.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.

철저하게 자시의 존재와 관련하는 부분들의 역동성--> 형식

오스카 와일드: 예술은 주관적 사심을 드러내지 않고, 욕구에 근거한 형식이나 합리적 형식에 의지하지 않기에 도구적 쓸모가 없다.

예술은 예술작품에 대한 우리의 기획을 분리하고 자유롭게 한다.

신비평가들

존 크로 랜섬 『신비평』

웹서트 --> 문학의 낭만적 이해

시는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자족적 의미를 지닌 독립적인 대상

존던: 시란 영리하게 만든 작은 세계. 소주주, 정수, 진수임. 달리 말해, 문하글 세계 만들기로

이해하는 관점 (그대로의 사물이 아닌 있어야 할 상태의 재현)에서 보면 하나의 “모델”

## 6장

### 신비평과 서구의 다른 형식주의들

통일성이라는 기준

신비평과 모더니즘 작가들

T. S. 엘리엇, 제임스 조이스

① 구식 문헌학

② 감동교육

--> 이러한 비평의 관행인 현학, 감정 토로, 산만함에서 벗어나려함

I. A. 리차드 (심리학)

시는 우리의 심리적 구조 가운데 과학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구를 충족시킨다

우리의 요구가 조화롭게 조직되는 그 ‘종합’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해체될 수 있는데, 문학은 갈등과 대립의 요구를 화해시키다.

시는 (과거의 종교처럼)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.

윌리엄 엠프슨 (『중의의 일곱 가지 유형』)

분위기가 해석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슨 소용이 있는가?

의미는 저자의 영역

시의 통일성에 관심이 없음(시가 대립 요소들을 화해시킬 수 없다, 환원 불가능한 대립의 표현, 작가 정신 속의 근원적 분열)

“중의”: “아이러니”, “역설”, “긴장”

신비평의 정치적 보수성

## 7장 러시아형식주의

### 러시아형식주의와 기호학의 교차

신비평 여전히 해석학(내용에 초점)의 범주

해석학-소통과 이해의 가능성

러시아형식주의자의 ‘문학성’-소통과 이해와 무관: 말을 거칠게 하는 것, 낯설게 하기-> 의미

전달의 속도를 늦추고 방해

형식주의자들은 오로지 문학이 조립되는 방식에만 관심

오직 문학적 텍스트의 각 부분이 형식적으로 교차하는 방식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관심

1단계: '문학'은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

2단계: 관찰 기술이 가능 현상의 분리하고, 이 데이터베이스를 '문학성'이라 부름-> 어떤 장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연구/확장

아이헨바움: '과학의 위한 투쟁' 마르크스와 다윈: 생존 투쟁, 지배 투쟁

트로츠키: 자기에 몰두하고 역사와 계급투쟁에 무관심한 '유미주의' 비판

다양한 장치로 텍스트의 표면을 거칠게 하는 것이 자동화된 지각을 낮설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,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비의미적인 특징들을 갑자기 다시 보는 동시에, 우리 눈 앞에 있는 사물로부터 익숙함이라는 막을 떼어내는 언어장치들을 이용하여 세상 자체를 새롭게 볼 수 있다.

야콥슨: '비트'라고 부른 회색 균일성을 물리치는 것

문학성: 익숙하지 않는 장치들이 지각을 흔드는 방식

새로움: 낮설게 하는 것을 뚜렷하거나 거칠어진 형식, 자동사적인 물질성과 관계

무엇이 형식인가?

무엇에 대립하는가. --> 모든 것이 형식 (형식과 내용의 구분이 없다)

시적 언어/실용적 언어 ('내용'이라고 부르는 것을 분리해내고자 한다면, 그 내용은 결국 본질적으로 장치 중 하나라는 사실)

플롯/스토리

리듬/운율

"새로운 형식의 목적은 새로운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, 미적 특질을 상실한 낡은 형식을 바꾸는 것이다." 시클롭스키

혁명이 아닌 진화

--> 슬쩍 감추어진 미학적 의제